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9월 25일 (제86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닫은 문은 열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계3:7).

본시 문이란 닫은 자가 열게 되어있다.
 남북 간에 문을 닫은 분은 하나님이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는 10월 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오직 불가능하다는 생각뿐이다.

한나는 닫힌 태의 문을 열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 문을 열었다.
 모세는 막힌 홍해에 길을 열었다.
 우리도 막힌 휴전선을 열어보자.

반드시 우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사
 꿈을 꾸듯이 통일되는 것을
 머잖아 우리 눈으로 목도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이다.

모두 동참하여 역사의 중심에 기록된 자가 되자.

朋友 이초석 목사

평화통일 기도성회

2016.10.3 오후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후1:1~19)

‘아멘’ 하는 자는 기적의 영광을 맛본다

‘아멘’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웁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예’ 하는 것이요, ‘순종’이란 말과도 상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한 뒤 마게도나에 돌아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6~10절에 자세히 쓰여 있듯 성령께서 마게도나로 먼저 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접고 ‘예’ 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행위를 비판하고 바울을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적대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19~20).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14:36) 라고 하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예’로만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 라는 순종의 조건으로만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 서라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초상집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고하고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2:5)고 했습니다. 무조건 “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시고, 차때 그것을 떠다주라고 하니 하인들은 떠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아멘”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11:8).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 부르

쳐녀 마리아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수태된다는 하나님의 사자 말씀에 그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입니다. 바다나 고기잡이에 관해서 그는 한마디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시몬 곧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깊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 마

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5:5)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비해놓으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예” 합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내 이론, 내 지식, 내 경험에 비추어보고 의문도 제기하고, 반발도 하고, 토도 달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는 말씀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는 말씀 말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예” 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런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고전2:9)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인간사 내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 받는 게 만고의 진리다

내 이론, 내 지식, 내 경험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고(빌3:8),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4~5)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제 31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 했기 때문에 저 같은 불품없는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억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예” 했고, 2000년을 기점으로 해외로 가라는 말씀에 언어도, 풍습도 모르는 곳이지만 “예”하고 갈 바를 모른 채 간 것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는 말씀이 백 번 울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남은여생 더욱 “예” 하며 살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오직 “아멘”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예”만 하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후3:5).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평화통일이 가능한 이유

베룩이 아름답다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과 과연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할까? 열강들의 이기적 패권 다툼 한가운데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한 일일까?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도, 현재도 가능성 희박한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 8·15 해방도 그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도 그랬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할 뿐이다.

바다가 하룻밤 사이에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한 길을 건너듯 바다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이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가능한 일일까?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수류탄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돌고, 돌고, 또 돌다가 나팔소리와 함께 ‘무너져라’고 소리만 질러서 여리고 성 같은 큰 성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태양이 멈춰 선다거나 태양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가능한 일인가 말이다. 평생 짚고 다녀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지팡이를 지성소에 넣어두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짚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열매가 달리는 일이 가능할까?

고래가 삼킨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3일 살아 있다가 멀쩡하게 살아나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죽은 지 나흘 되어 장사를 지낸 사람이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다는 것은? 병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할 뿐인 것이다. 그래서 평화통일도 가능한 것이다.

그 하나님은 옛적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장래에도 계속 일하실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뿐이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머지않아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통하고, 여행하고, 함께 교육하고, 집회하고, 뛰어노는 날이 올 것이다. 꿈꾸는 듯한 그 날이...

우리 다 함께 10월 3일 오후 3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으로 모입시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그 날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이시대 목사

153구제운동본부(153 AID)에서는 지난 9월 구제물품 153박스를 지방으로 이송하였다. 이는 지방의 한 기업가가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교회를 세웠는데, 이를 후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총회장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아둔 옷가지들을 이들에게 공급하라고 지시하셨다. 이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 구제물품은 인천교회의 정광훈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이 정성을 들여 정리하며 간수해온 것들이다.

153구제운동본부는 늘 소리 없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며 후원하고 있다. 어느 지역을 봉사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늘 구제물품을 볼 때면 느끼는 바가 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스런 마음이다. 비록 새 제품은 아니지만 정말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려서 비닐까지 씌워오는 것을 볼

때면 절로 흐뭇한 마음이 든다. 그 마음을 어찌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아름답다. 어차피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아름답다 하시고 그들을 위한 축복을 예비하신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15:10),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

작은 것을 나누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 귀를 기울이세요 ::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기회

사소한 말 한마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태가 세간의 큰 이슈입니다. 삼성은 이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현재 시중에 풀린 250만대의 갤럭시 노트7에 대해 전량 리콜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리콜로 삼성이 입을 손해액은 대략 2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왜 삼성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때 삼성이 문제가 되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리콜을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익명계시판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답니다. 무선사업부의 한 엔지니어는 “전량 리콜 후 신제품으로 교환해주세요. 내 성과급 안 받아도 되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부끄럽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직원들도 “고객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 “사전구매 고객은 회사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이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등등의 글이였습니다.

그러자 경영진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그들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고객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전량 리콜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신뢰로 어떻게든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돈으로 다시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을 쌓아두고 계시지만, 그것들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와 신뢰가 구축되길 원하십니다. 신뢰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구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5:8).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녀들이 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첫 영화에 실패한 감독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며 한 배우를 출연시키고 싶었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한 자신에 비해 배우는 너무 잘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감독은 배우에게 대본을 보내고 그에게 전화를 하게 된다. 신호음이 들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아! 저... 시나리오 보냈던 감독입니다. 혹시 시나리오 읽어보셨나요?”, “네! 출연하겠습니다.”, “네?”, “난 이미 5년 전에 당신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어요.”

5년 전 이 배우가 무명일 때 한 영화의 오디션을 보게 된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배우는 집에 힘없이 돌아와야 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집에 돌아온 배우는 자신의 핸드폰에 음성메시지가 녹음된 것을 듣게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디션 보던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배우는 충격을 받았다. 여태껏 수백 번 이상 많은 오

디션을 봤지만 어떤 영화사나 제작진도 떨어진 자신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연락을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우는 생각했다. ‘언젠가 이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난 그의 영화에 꼭 출연하리라.’ 그래서 배우 송강호는 감독 봉준호의 2002년 작 ‘살인의 추억’에 출연하게 된다. 이 후 영화 ‘살인의 추억’은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게 되고, 감독 봉준호는 연이어 영화 ‘괴물’, ‘마더’까지 흥행시키며 한국 최고의 감독이 되었고,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송강호는 봉준호의 말 한마디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았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는 천 냥 빚을 갚기도 하고 천 냥 빚을 지기도 한다. “여보, 이번 명절에 고생했어.”, “정 대리, 이번 프로젝트 당신 때문에 성공했어.”, “권사님의 기도로 우리 교구가 날로 부흥이 돼요.”, “괜찮아,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시간도 돈도 안 드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의 인생을 평생 돕는 조력자가 될 것이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빈 수레가 되지 말자

나는 모 영화배우의 ‘빠순이’다. 정확히 말하면, 팬 카페의 운영자이다. 벌써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빠순이집’을 열심히 해왔다.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 그 배우와 나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 그리고 친구도 동지도 아닌 의리로 뭉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빠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배우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때때로 만나 식사를 하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굳이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SNS에 ‘인증샷’을 올릴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얼마 전, 시사회에 찾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자신은 그 배우의 동생이며, ‘우리 오빠’를 잘 부탁한다고 나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혹시나 싶어 배우에게 확인해보니, 대략 팔촌 이상의 아주 먼 친척으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유명 배우의 ‘팬질’을 하다보면 종종 있는 일이라 서로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여자

의 SNS를 볼 때면 짜증이 난다. ‘우리 오빠’ 운운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치 그 배우인냥 으스대는 모습이 썩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무슨 배우, 무슨 감독들이 있는 행사만 찾아다니며, 인증샷을 찍고 전국을 돌아다닌다. 정작 자신이 해야 할 공부는 접어둔 채, 한두 번 만난 유명인들과 절친인양 행세하는 그녀의 모습은 솔직히 한심스럽다.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이 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 세도를 부리는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자신의 뒤에 호랑이를 세운 채, 호랑이에게 옆드리는 동물들이 자신에게 옆드리는 줄 알고 으스대는 모습은 자신의 실력과 캐리어가 아닌 내가 아는 사람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으스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요란하다는 것이다. 인증샷을 올리고, 실시간 댓글을 달고, 어찌다 한번 만나 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인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한다. 정말 말 그대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리고 그 사람들의 평판은 대개의 경우 좋지 못하지만,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 그들을 향한 부러움의 시선과 댓글들이 결국 한심함의 다른 표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도 호가호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화려한 조명 언저리를 맴돌며 유명인의 노력을 발판 삼아 으스대려는 술한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묵묵히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 끝에 영광의 자리가 있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들을 보며 오늘도 나를 돌아본다.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싶다. 오로지 하나님의 후광에 힘입어 영광 돌릴 그 날을 기대하며 호가호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삼 되새겨 본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눅 21:19).

전훈지
ppjee@hanmail.net

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었도다.”(딤후6:10)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불행은 끝이 나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내 체질은 무엇일까?

사상의학은 모든 인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발전해온 기존의 의학 이론에 비해 인간의 체질을 넷으로 나누어 그 성격과 체질에 맞는 음식과 약재가 따로 있음을 밝히낸 최초의 한의학 이론이다. 1837년에 출생한 이제마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고전과 글쓰기에 능했고, 무예를 즐겨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평생 지녀야 했던 병인 식도협착증과 다발성 신경염으로 고생했고, 그 때문에 한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마 선생은 기존의 한약을 통하여 수많은 위장병 환자들을 치료했음에도, 본인의 위장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로 같은 약이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지만 다른 이에게는 약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태양인은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목덜미가 굽고, 눈이 예리하며, 말투가 직설적이고 정리 정돈에 강하다. 인간관계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과단성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독선적이고 여유가 없다. 항상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고 후퇴란 없다. 늘 조급해하는 마음

이 건강과 일을 망치게 된다. 양파, 메밀, 고사리와 같은 음식들이 잘 맞는다. 소양인은 비장이 강하고 신장이 허하여, 소화기능이 원활하나 배설기능이 약하고, 말이 많고 말실수도 많다. 일의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가 부실하고 별리기만 하고 거두진 못한다.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치중하고, 봉사정신이 강하고 인정 많고 이해 타산적이지 않다. 허리가 약하고, 신장이나 방광으로 병이 잦다. 몸을 시원하게 하는 녹두, 오이, 가지가 잘 맞는다.

태음인은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하여 흡수하는 기운이 강하나 내뿜는 기운이 약하다. 골격이 크고, 눈빛이 조금은 멍해 보인다. 지구력과 끈기가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보수적이다. 땀이 잘 나면 건강하고 땀이 안 나오면 몸에 이상이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이 가장 많이 오는 체질이다. 호박, 무, 마늘이 궁합에 잘 맞는 음식이다.

소음인은 비장이 약하고 신장이 실하여, 소화기능이 약한 반면 배설기능이 강하다. 하체가 주로 발달되어 있으며, 손발이

차고, 엉덩이 자궁이 발달되어 있다. 미인과 미남들이 많다. 소극적이고 유순하고 침착하다. 소화가 잘 되면 건강하나, 소화가 안 되거나 땀이 많이 나면 나쁜 상태이다. 부추, 토마토, 감자가 찰떡궁합이다. 그럼 체질에 맞는 음식만 먹어야 하는가? 꼭 그렇지 않는 않다. 몸이 건강할 때는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어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건강하지 않을 때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

각 체질에 따라 성격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각 체질에 따라 병이 잘 오는 장기가 있고, 덜 오는 장기가 있다. 항상 문제가 오면 신체의 특정 기관이 불편해진다. 바로 그 부분이 나의 약점이자 나의 약한 장기와 관련이 되어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성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을 주셔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하여 건강하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친구란?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대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었는데, 수 천통이나 되는 응모엽서 중에 다음 내용들이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오랜 시간 침묵이 흘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도 교감이 이뤄지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을 믿고 깊은 비밀은 지켜주는 사람.”

하지만 1등은 다음의 글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세상에는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행동이나 성과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실수나 실패를 해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지요.

누군가 말하길 “진정한 사랑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우정은 눈을 감아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에게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비밀이 없을 만큼 절친한 친구를 “죽마고우”라 하고, 숙명처럼 물과 고기의 삶 같이 친밀한 친구를 “수어지교”라 합니다. 단단한 무쇠나 돌처럼 서로 견고함을 지닌 사이를 “금석지교”라 하고, 오랫동안 편한 친분을 쌓은 친구를 “막역지교”라 합니다. 또한 한결같고 허물없는 친교를 맺은 친구를 “관포지교”라 하고, 목숨 걸고 신의로 맺은 친구를 “문경지우”라 하는데 이 중에 어떤 친구라도 한두 명쯤 곁에 두고 있다면 분명 성공한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친구를 다 합해놓은 ‘생명을 준 친구’, ‘생사고락을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곧 나의 친구라”(요15:14,15).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 Global Study ::

♣ 경쟁에 이기려면
대결의 구도가 아니고
협력의 구도다

Be cooperative rather than
being confrontational, in order to have
victory over your competition.
想要在竞争中得胜,就彼此协助,
不要对决。

♣ 대결은 공멸이요 협력은 공생이다
Confrontation brings destruction, while
cooperation brings coexistence.
对决是共灭,协力是共生。